우란분절 백중영가 천도재

부처님의 십대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출중했던 목련존자의 모친은 이승에서의 삶이 덕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통력이 뛰어난 목련존자가 모친의 사후 세계가 궁금하여 관법으로 살펴보니, 어머니는 지옥에서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며 아들인 목련존자에게 자신을 지옥으로부터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목련존자는 이런 상황을 부처님께 여쭈니 부처님께서는 하안거 해제일인 칠월 보름날에 대중에게 공양을 베풀고 일심으로 모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마침내 대중들의 일심 축원으로 목련존자의 모친은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이날이 바로 음력 7월 15일, 우란분절 또는 백중이라고 합니다. 법주사에서는 7번의 정성스러운 재를 올리면서 조상 천도를 위한 백중 49일 특별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49재 일정

입재 : **7**월 **1**일(음 5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1재 : **7**월 **7**일(음 6월 2일) 일요일 오전 **10**시
2재 : **7**월 **14**일(음 6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
3재 : **7**월 **21**일(음 6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
4재 : **7**월 **28**일(음 6월 23일) 일요일 오전 **10**시
5재 : **8**월 **4**일(음 7월 1일) 일요일 오전 **10**시
6재 : **8**월 **11**일(음 7월 8일) 일요일 오전 **10**시
회향 : **8**월 **18**일(음 7월 15일) 일요일 오전 **10**시



- **동 참 금** : 영가 1위당 **2**만원 기도비 - **3**만원 (49일동안 영가등 밝혀드립니다)
-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4 | 6

부처님 말씀 어두운 생각을 몰아내자 / **이달의 법문** 내려놓으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 **주지스님 법문** 이 좋은 날에 / **걸망메고** Vedana(웨다나) 이해와 수행에 대하여(2) / **특집** 불자로서 어떻게 백중에 임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 **감로의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다 / **수행여화** 돈이 나와, 밥이 나와? / **법주사 행사일정** / **법주사 소식** / **미륵재일기도** / **초하루 신중기도** / **법주사 광명진언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우란분절 백중영가 천도재**



어두운 생각을 몰아내자

어두운 생각이 마음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많은 인원의 도적 무리 중에서 처음 한 도적이 가만히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 들어온 어두운 생각을 지체없이 자기의 마음 밖으로 몰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그 도적의 무리가 많은 세력으로서 마음속 깊숙히 침입하여
가장 값진 재산인 밝은 마음을 빼앗아 가 버린다.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값진 재산은 밝은 마음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유類는 유대로 모인다는 법칙이 있어서
사람이 밝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밝은 일들이 모여와서 행복을 창조하고
건강과 번영이 바로 나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마음에 어두운 생각이 몰래 들어와 주동세력으로 성장하여
권력을 잡으면 어두움이 유類를 따라 병과 불행과 빈곤 등이 몰려오는 것이 된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을 통하여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빈축과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옛 선지식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는 것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4 6 | 통권 389호



2 부처님 말씀 어두운 생각을 몰아내자
4 이달의 법문 내려놓으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6 주지스님 법문 이 좋은 날에… 정덕 스님
8 걸망메고 Vedanā(웨다나) 이해와 수행에 대하여(2) 보적 스님
12 특집 불자로서 어떻게 백중에 임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편집실
14 감로의 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다 장산 스님
17 수행여화 돈이 나와, 밥이 나와? 현진 스님
20 법주사 행사일정
21 법주사 소식
22 미륵재일기도 / 초하루 신중기도
23 법주사 광명진언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24 우란분절 백중영가 천도재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8(단기4357)년 6월호 통권 389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덕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보적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내려놓으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지명대종사 법주사 조실



"爾諸人은 要參禪麽아. 須是放下着이니 放下箇甚麽오.
放下箇四大五蘊하며 放下無量劫來許多業識하고 向自己脚跟下하야 推窮着호대 是甚麽道理오 하라.
推來推去하면 忽然心華發明하야 照十方刹이니 可謂得之於心하며 應之於手하야 便能變大地하야
作黃金하며 攪長河하야 爲수酪하리니 豈不暢快乎生이리오."

"대중들은 참선의 요체가 무엇인 줄 아는가? 모름지기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무엇을 놓아 버릴 것인가 하면 육신을 놓아 버리는 것이고,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쌓아온
업식을 놓아 버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의 발밑을 향하여 추궁하되 '이것이 무슨 도리일까?'하고
추궁하고 추궁하다 보면 홀연히 마음의 빛이 활짝 밝아져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게 될 것이다.
어찌 평생이 화창하고 시원하지 않으랴!"

이 법문은 중국 송나라 때 고승인 황룡 오신선사의 말씀입니다. 중생은 주야장천 자기와
자기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지요. 내 것, 우리 것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모두를 자기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화를 내는 것도 그 이유가 본디 간단하니, 잘 가두어지지 않아서입니다.
남을 해치고 속이는 것도 내 안에 그를 가두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란 무엇인가요? 결국 '환화공신'에 불과 합니다.
아무리 이 몸을 잘 먹이고 호강시켜 봐야 100년을 넘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연이 다하여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흩어지면 그 무엇을 자기라 할 것이며, 자기가 없어졌는데 또 그 무엇을 자기라 할 것입니까?
모두 쓸데없고 허망합니다. 부질없는 집착을 괜히 무겁게 짊어지고 있지 말라.
방아 착 하십시오. 탁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인생은 오래도록 유쾌할 것입니다.

옛날 조주선사에게 누군가 물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가? 그러면 그만 내려놓게."
"아무것도 없다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럼, 계속 들고 있게."
조주 화상은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었을까요? 분별하고 집착하면 들고 있는 것이요
분별과 집착이 없으면 내려놓은 것입니다
짧은 것이 길 수 없고 푸른 것이 붉은 것일 수 없습니다.

행복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미소를 머금은 행복이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사바의 참모습은 수억만 년 동안 비춰주는 해와 같고 티 없이 맑은 창공과 같아 청정한 것인데 집착과
분별심을 일으키는 마음에서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고, 그로써 욕심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집착과 분별심을 버리고 더불어 하나가 되는 본래 청정한 사바세계를 이룹시다.

이 좋은 날에…

정덕 스님 법주사 주지

산과 들에 꽃이 피고 나무마다 새가 울며
벌 나비가 춤을 추는 좋은 계절입니다.
높이 떠올랐던 화살도 기운이 다하면 땅에 떨어지고,
피었던 꽃과 잎도 뿌리로 돌아갑니다.
이를 들어 인연因緣이니
윤회輪廻이니 인과因果이니 합니다.
이 좋은 날 지금 여기서 길게 한 호흡을 들이면서
자신의 존재(마음, 행동, 말, 사고 등)를 살펴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판단해 볼 일입니다.

중생심으로 또는 자아의식으로
남을 의식하고, 시기, 질투하고,
중생심의 번뇌 망념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일체의 모든 식물이나 나무, 꽃들이 시절 인연에 따른
생명활동으로 봄에 새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자아의식도 없고,
의식의 대상 경계도 없고, 조작, 목적의식, 작위성이 없이
무심하게 자기 본분 사의 일을 행하고자 하겠습니다.



Nikāya를 중심으로

Vedanā(웨다나) 이해와 수행에 대하여 (2)

보적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지난호에 이어〉

(2) 연기[緣起, paṭicca-samuppāda]에서의 vedanā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느낌[受]인가?
비구들이여, 여섯 가지 느낌의 무리
〔六受身, cha vedanā-kāya〕가 있나니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코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마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느낌이라 한다."
〔분석 경(Vibhaṅga-sutta),S12:2〕

위와 같이 연기와 관련된 Nidāna-saṃyutta에서는 느낌에 대해서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cakkhu-samphassajā vedanā〕'와 같이 눈과 감각 접촉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이 느낌이라고 설명되어지고 있다. 오온의 문맥에서의 느낌에 관한 다양한 설명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기적인 이해가 전적인 것이다. 그러나 vedanā를 연기적인 이해에 관한 또 다른 경을 살펴보면 몰리야팍구나 경〔S12:12〕이 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누가 느낍니까?"
"그것은 타당한 질문이 아니다."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중생이나 사람이〕 느낀다.'고 말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중생이나 사람이〕 느낀다.'고 한다면, '세존이시여, 그러면 누가 느낍니까?'라는 그대의 이 질문은 타당하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이 말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엇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습니까?'라고 물어야 그것이 타당한 질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타당한 설명을 할 것이다. '감각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고, 느낌을 조건으로 하여 갈애가 있다.'라고"

〔몰리야팍구나 경(Moliyaphagguna-sutta),S12:12〕

위와 같이 vedanā를 연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질문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
하나 더 살펴본다면 띰바루까 경〔S12:18〕에서 띰바루까 유행승이 세존께
'괴로움과 즐거움은
① 스스로가 만드는가?
② 남이 만드는가?
③ 스스로가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는가?
④ 스스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기는가?
⑤ 즐거움과 괴로움이란 없습니까?
⑥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가르침을 청함으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신다.

"띰바루까여, '느낌과 느끼는 자가 같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존재한 것을〔상정하여〕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가 짓는다.'라고〔주장하는 것이 되어 이것은 상견에 떨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띰바루까여, '느낌과 느끼는 자가 다르다.'고 한다면 느낌에 압도된 자가 '즐거움과 괴로움은 남이 짓는다.'라고〔주장하는 것이 되어 이것은 단견에 떨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띰바루까여, 이러한 양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간[中]에 의해서 여래는 법을 설한다."라고 하시면서 12연기를 말씀하신다.

III. Vedanā를 통한 수행

Vedanā를 통한 수행에 있어 Mahāsatipaṭṭhāna-suta〔D22〕의 느낌의 관찰(受隨觀)을 살펴보면 먼저
① 즐거운 느낌 ② 괴로운 느낌
③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④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
⑤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
⑥ 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⑦ 세속을 여읜 즐거운 느낌
⑧ 세속을 여읜 괴로운 느낌
⑨ 세속을 여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세속을 여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형구가 시설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受隨觀〕 머문다.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느낌이 있구나.'라고 사띠를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사띠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위와 같이 vedanā를 통한 수행에 있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사념처 경을 들수 있고
Vedanā-samyutta〔S36〕에 포함된 몇몇 경들
〔빤짜깡가 경(Pañcakaṅga-sutta, S36:19),
출세간 경(Nirāmisa-sutta, S36:31)〕에서
특히 느낌의 순화와 안정과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삼매를 닦을 것을 강조해서 설하고 계신다.
그래서 네 가지 선〔jhāna〕이 강조되어 나타나고
4선-4처-상수멸의 구차제멸 혹은 구차제정도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아래에서 인용하고 있듯이
세존께서는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고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비구들이여, 즐거움을 느낄 때
탐욕의 잠재성향을 버려야 한다.
괴로움을 느낄 때 적의의 잠재성향을 버려야 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경우
무명의 잠재성향을 버려야 한다."
〔버림 경(Pahāna-sutta), S36:3〕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살에 꿰찔리고 연이어 두 번째 화살에
또다시 꿰찔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 화살 때문에 오는
괴로움을 모두 다 겪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을 겪을 때,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광란한다. 그래서 이중으로 느낌을
겪는다. 즉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이다."
〔화살 경(Salla-sutta),S36:6〕

그리고 〔간병실 경(Gelaññña-sutta),S36:7〕에서
비구는 이처럼 사띠하고 분명히 알아차리며,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중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지금 나에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고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며
몸에 의해 조건 지워졌고,
그런데 이 몸은 참으로 무상하고 형성(有爲)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緣而生〕이므로
몸에 조건 지워진 이 괴로운 느낌이
어찌 향상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시면서
아래 인용구와 같이 설하신다.
오온에서의 수행은 Vedanā를 포함한
오온의 무상.고.무아를 꿰뚫어 알아
Viññāṇa를 확립시키지 말고 낮은 단계의
족쇄〔下分結〕를 잘라내므로
즉시에 번뇌들이 멸진하게 되도록 시설하신다.
또한 오온 각각의 요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으로 팔정도를 설하시기도 하신다.
그리고 연기의 수행에 관련해서는
연기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통찰지로써
관통하여 제법무아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느낌을 발생시키는 감각접촉을 소멸하는
조건 소멸이라는 연기적 수행을 시설하신다.
양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간에 의해서
여래는 법을 설하신다고 하시면서
연기〔緣起, paṭicca-samuppāda〕를 시설하신다.
〔기반 경(Upanisā-sutta),S12:23〕에서는
번뇌들이 멸진하는 기반으로 해탈, 탐욕의 빛바램,
염오, 여실지견, 삼매, 행복, 고요함, 희열, 환희,



믿음, 괴로움으로 계속해서 연기적 기반의
발생과 소멸을 설하시기도 하신다.

Ⅳ. 마무리

느낌〔受, vedanā〕은 연기의 구성요소이면서
오온〔S22〕의 두 번째 구성요소이고
상윳따 니까야의 Vedanā-samyutta〔S36〕의
주제이기도 하다.
처음에 vedanā의 어근 √vid를 주목하게 된 것을
계기로 Nikāya를 중심으로 Vedanā의 이해와
수행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수행에 있어서의
공통점에 관한 것을 내나름의 이야기를 한다면
아래 인용하는 경전구절과 함께
내가 가장 관심갖는 사띠와 알아차림
〔正念正知, sati ca sampajañña ca〕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일 것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어떻게 여인을 대처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쳐다 보지말라."
"세존이시여,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말하지 말라."
"세존이시여,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사띠를 확립해야 한다."

불자로서 어떻게 백중에 임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편집실

음력 7월 15일은 스님들의
안거가 끝나는 시기여서 중요하고,
농사짓는 이의 입장에서도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작물이 무르익어가는 시기이며,
게다가 보름달이 뜨면 보름날이니 그야말로
최고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1년 중 아주 좋은 날을 기준으로
목련존자의 효심을 생각하면서
우란분절을 절정으로 삼아
49일 또는 21일 동안 기도 정진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기도기간을 우리는 자신을 발전시키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백중 칠칠재를 치르는 49일간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택하여 마음공부의 기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천도재를 올리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상님 천도를 잘하면 산 사람에게 좋다,
자손에게 좋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조상 천도는 내가 복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 주고,
나를 부처님과 인연 맺게 해 준 조상님들의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이 우선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천도재를 올려드리니까
그 과보로 내게 좋은 일이 생겨야 한다'는
계산보다는, 청정한 승가를 통해
조상님들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다음 생에
불자로서 반듯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직 그것만을 바라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게 해 준 선망 부모와
조상님들에게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면 아무리 현재의 삶이 각박하고
괴롭다 해도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불자로서 백중을 지내면서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첫째는, 스스로 일심으로 원력을 세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반드시 사찰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독송해서 영가에게 좋은 법문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사찰에서 스님들께서 제사 지낼 때,
염불 의식이 모두 영가를 위한 좋은 법문입니다.
그러니 꼭 사찰에서 의식을 하고,
독송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백중 기도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도 매우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세계에 함께 공존하고 모든 존재들이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던 것이니,
소중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효를 실천하는 기간으로 삼으면,
더욱 의미 있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넷째는, 승보공양입니다. 백중기도의 기원이
승보에 대한 공양에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백중기도는 대체로 승가에 대한
공양에는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천도할 수 있었던 덕이 곧 승보공양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개인의 위신력도
어머니를 악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지만,
대중스님의 위덕으로
어머니를 천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양을 올리는 이의
마음자세일 것입니다. 백중기도가
곧 승보공양이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분히 뒤를 돌아보고,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혹시 내가 뒤엉킨 생각으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피면서, 삶의 방향을 세워야겠습니다.
백중에는 모든 조상과 부모의 업까지
모두 참회하면서 탐진치 삼독을 내려놓은 삶을
살아갈 것을 발심하며 부처님 법 전합시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다

장산 스님 법주사 사리각

금강경金剛經제18,
일체동관분一體同觀分이 있는데,
'일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라'는 의미다.
부처님께서 묻고 수보리존자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래(부처님)는 육안肉眼이 있는가? 하니
수보리존자가'있습니다.'하고,
이런 식으로 천안天眼이 있는가?
혜안慧眼이 있는가? 법안法眼이 있는가?
불안佛眼이 있는가? 함에 모두 있다고 대답한다.
금강경에서 설하는 오안五眼은,
다섯가지 안목의 차원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즉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천안으로 볼 수 있으며,
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혜안으로 볼 수 있으며,
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법안으로 볼 수 있으며,
법안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은
불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불안일 때만이 완전히 일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성인이나 범부나 유정과
무정물까지 산하대지도 모두 평등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란 실로 어렵다.
평등하다와 동등하다는 뜻은 엄연히 다르다.
평등하니 같아 보인다면 착각도 유분수다.
평등하다는 것은 그 가운데 차등이 있음을
단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말하지만
같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고 무얼 안다,
보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국소적이고
편협함을 깨달을 때가 있다.
어떤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보는 사람의
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위기危機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기회機會를 위기로
몰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 고사古事를 들어보자.
중국의 공자(B.C551~479, 춘추시대 말기의
대사상가)도 춘추전국시대에 태어나
곤란을 만날 때가 더러 있었다.
한번은 전쟁중에 제자들과 유행하시다가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제자들과 함께
3일간이나 굶주렸는데,
마침 공자를 알아보는 지인이 있어
쌀 한 말을 얻어 왔다.
이 저녁 짓는 일을 상수제자 안회가
부엌에서 밥을 짓기로 했다.
모두들 배가 고파서 코를 벌름거리며
주린 창자를 달래고 있었다.
그때 공자님도 시장하기는 마찬가지라
부엌 쪽으로 쓰윽~ 가보니,
안회가 주걱으로 밥을 퍼먹고 있는 게 아닌가?
그때 공자님이 생각하기를
저놈이 그럴 놈이 아닌데, 어찌 저럴까, 하고
궁금하기도 하여 넌지시 말을 던져 보았다.
"오랜만에 밥을 지었으니,
역대 왕조와 선조들께 먼저 제사를 올려야겠다.
허니, 정갈하게 그릇에 담아 올려라."하고
일침을 놓았다. 그 때 안회의 대답이 돌아왔다.
"스승님, 이 밥은 제사에 올리기는 부적절합니다.
다시 밥을 짓겠습니다." 하였다.
"이 밥은 제가 밥이 뜸이 들었는가하고
솥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살펴보려는데,
그만 천정에서 시커먼 거미줄이

솥 안으로 떨어져서 거미줄을 걷어 내면서
주걱에 붙은 밥알이 아까워
제가 먼저 입을 대었습니다.” 하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모두들 배가 고프니,
다음 기회에 제사를 모시고
이번에는 그냥 먹자.”하고
안회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공자님은 홀로 생각하기를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야
하물며 남에게서 듣는 소리이겠는가!’ 하며
안회를 잠시라도 의심했던 자신을 나무랐다.

또 다른 가슴 뭉클한 이야기도
생각의 틀, 즉 안목을 바꾸어야
한다고 일깨워 준다.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1861~1941)의
집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었다.
하인과 같은 그는, 어느 날 출근 시간보다
3시간이나 뒤늦게 출근했다.
기다리다 지친 타고르가 화가 나서
집 마당을 쓸고 있는 그의 빗자루를
뺏어 집어 던지며
“당신은 오늘부터 해고야!
빨리 이 집에서 나가.”하고 고함을 쳤다.
“죄송합니다. 주인님,
어젯밤에 갑자기 어린 딸아이가 죽어서
아침에 묻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하며 울먹였다.
타고르는 그 말을 듣고,
인간답지 않게 냉혹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은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만 생각할 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깨달았다고 한다.

현대용어로 프레임(frame)이란 말이 있다.
뜻은 창틀, 뼈대, 골조, 짜임새, 준거기준,
평가 기준 등으로 해석된다.
프레임의 법칙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떠한 틀, 혹은 가치 기준을 갖고
상황을 해석해 보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법칙이다.
누구나 고정관념과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있으며
한번 굳어진 고정관념은 쉽게 바뀌지 않는데
생각의 틀, 즉 안목을 바꿔야 한다는
교훈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창조적이고 의미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관심일법시하사 觀心一法是何事
미운파처월고명 迷雲破處月孤明
범성종래무이로 凡聖從來無二路
막장사견수다도 莫將邪見隨多道

마음을 살핀다는 일법이 무슨 일인고?
미혹의 구름 없어진 곳에 우뚝 밝은 저 달이여!
범부와 성인은 본래 두 길이 아니거늘
삿된 견해로 이리저리 헤매지 말라.

●●수행여화

돈이 나와, 밥이 나와?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1.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정원에 꽃을 심고 매일 호미질하는 것을 보고서 이웃집 할머니가 했던 말이다.
텃밭을 만들어 상추나 고추 등 작물을 길러도 될 텐데
허구한 날 꽃과 나무만 심으니까 답답하여 그리 말했을 것이다.
할머니가 보기엔 밥이 나오거나,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땀을 쏟고 있으니 그럴만하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았던 시대는 생산물이 최고의 가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부가가치의 시대. 때로는 취미와 소질이 돈을 주기고 하고
밥을 주기도 한다. 잘 가꾼 정원이 몇천 평 농사보다 수익을 창출해주는
시대로 변모했다. 또한, 생의 보람과 의미를 물질로 환산하는 것이 꼭 옳지는 않지만
내가 좋아서 즐기는 것은 손해 보더라도 무죄다.

2.
“그러다 생전 풀밭에서 못 나와!”
딸이 꽃 심을 거라며 땅을 매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정어머니가 했던 말이란다.
그러나 어머니의 걱정과 달리 풀밭에서 전원 생활하는 재미가 쏠쏠한 것을 어찌하랴.
땅과 가까이하며 식물을 살피는 일은 풀과 함께 시간이기도 한 것이라 그런 노동은
감수해야 한다. 풀 나지 않는 땅에는 농사도 지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3.
“요즘엔 돌아서면 풀이예요”
“그럼 돌아서지 마세요”

여름날 할머니와 나눈 대화.
이래서 또 웃었다.
저들의 세력이 거대하고 무서워서
그들의 생명력을 통제할 재간이 없다.
어느새 담장 너머 옆 마당까지
제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고 몰입하는 생의 의지는 놀랍다.
그러나 풀 매는 시간은 나를 순수하게 만든다.
그야말로 초草집중이다.

4.
"100살 먹어도 꽃은 좋아!"
구순이 넘은 할머니가 꽃을 심으며 했던 말.
꽃을 좋아하는 심성은 나이 들어도 결코 늙거나
시들지 않는다. 최고령 독자(82세)가 다녀가셨다.
여기 정원이 보고 싶어서 딸과 함께 방문했다.
그분의 집은 경북 문경인데 보조 지팡이에
의지하여 오신 것이다.
꽃을 보며 표정이 환히 달라지는 것을 보며
꽃을 아끼는 마음은 세월이 쌓일수록
더 깊어진다는 걸 알았다.

5.
"너희들은 손에 흙 묻히지 말고 편히 살아라"
어느 친정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딸들에게
부탁했던 말.
그러나 딸들은 이 부탁을 지키지 못하고
어머니의 꽃밭을 가꾸고 있다.
봄날 어머니가 심어 놓은 백일홍 꽃이 때가 되어
활짝 핀 것은 보며 딸들은 그 앞에서 울었다.
어머니는 안 계셔도 꽃은 남아 딸들에게
선물하였다고.
그리고 딸들은 여름이 지나서야 알았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부지런히 풀을 매고
꽃을 가꾸었는지를. 자식들에게 정갈하고
풍성한 꽃밭을 보여주려고 애썼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계실 땐 늘 정갈하여 풀이 없는
꽃밭인 줄 이제야 알았던 것이다.

6.
"사람마다 마음속에 각자의 시계가 있다."
어느 책에서 보았던 말.
나는 급해 죽겠는데 상대방은 느릿느릿 준비할 땐
속 터진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시계 속도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는지 모를 일.
정원 일도 다 때가 있는데 마냥 미루면
일만 누적되는 경우가 많다.
시계의 시침이 간격 따라 회전하듯 조금씩 조금씩
일을 마쳐야 계절 시계에 맞출 수 있다.

7.
"매화가 다 피면 모두 몇 송이일까요?"
"만 개입니다."

봄 햇살 아래에서 도반과 나눈 대화.
봄꽃이 활짝 피면 세어볼 필요도 없이 만개滿開다.
꽃이 만개했으니 온통 꽃 대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구를 걸었다.
꽃피는 지금이 내 인생의 화花일라이트!



8.
"이 꽃 이름이 마가렛이지?"
"아니야 데이지야"

풀 매고 있는 내 주변을 걸으며 방문객이 나눈 대화.
그 꽃이 마가렛이면 어떻고, 데이지면 어때.
꽃에 관심을 두는 그 심성이 더 좋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는
꽃과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어떤 수다보다 시끄럽지 않다.



화창한 법주사의 여름

자연이 기지개를 펴는 여름 법주사의 하루

마음을 유혹하는 아름다운 꽃일지라도
향기가 없는 꽃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말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

–법구경–

2024. 6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4.25 광명진언기도
2 26 어린이날 입하	3 27	4 28 합창단법회	5 망종 29	6 현충일 5.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보현회 법회	7 2	8 3 신중기도회향
9 4	10 5 다도반법회	11 6 탄성대종사다례	12 7	13 8 약사재일	14 9	15 10 다라니독송기도 법주회 법회
16 11	17 12 소만	18 13	19 14	20 15 보름	21 하지 16 미륵재일	22 17
23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24 19 다도반법회	25 20	26 21	27 22	28 23	29 24 관음재일
30 25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법주사 소식



5월 3일 보청천문화축제



5월 7일 정덕스님 고불식 봉행



5월 7일 정덕스님 고불식 봉행



5월 15일 초파일



5월 22일 하안거결제



5월 29일 포살결제 (비구스님)



5월 29일 포살결제 (비구니스님)

미륵재일 기도

다가올 미래에 공덕과 불법을 펼쳐 중생들을 교화해 주시는
미륵부처님께 매달 미륵재일마다 모든 중생들의 업장을 참회하고
소원성취 이루시길 발원합니다

- **일　시** 매월(음) **16~18**일
- **동참금** 가족당 **2**만원 (농협 403020 - 51-010482)
- **문　의** 원주실 (043) 543-4755

초하루 신중기도

매달 초삼일 동안 불보살님과 불법을 옹호하고 중생을 보호해 주시는
104위 신중님께 신중기도를 드리면 모든 재앙이 소멸하고 가정이 화목해지며
사업이 번창한다고 합니다



- **일　시** 매월(음) **초하루 ~ 초삼일**
- **동참금** 가족당 **2**만원 (농협 403020 - 51-010482)
- **문　의** 원주실 (043) 543-4755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법주사에서는 보물 1360호인 법주사 비로자나부처님전에 지극 정성으로
광명진언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자기 자신과 주위를 모두 밝히고
맑힐 수 있는 광명진언기도에 동참하셔서 뜻 하시는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2024년 **6**월 **1**일(음 4월 25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독송 기도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라는 다라니 중 "신비하고 미묘한 공덕을 갖춘
위대한 다라니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도 얻고
건강과 행복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　시** : 2024년 **6**월 **15**일(음 5월 10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 **장　소** : 법주사 대웅보전

